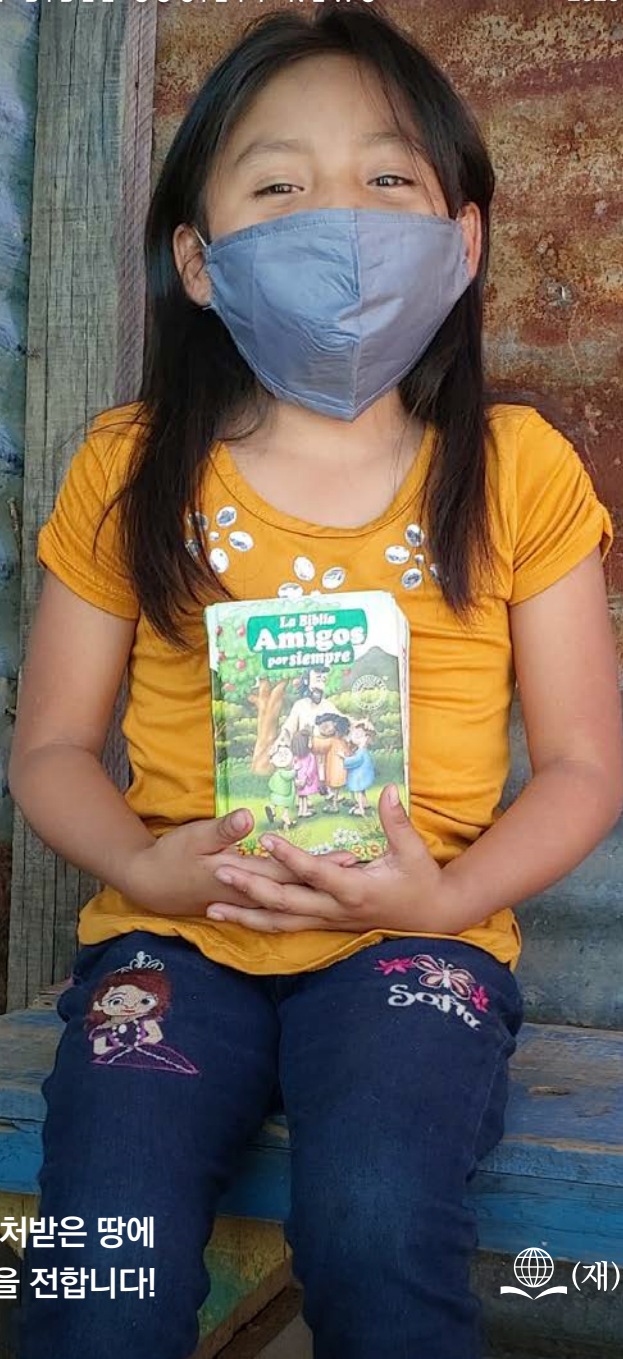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0년 가을 제66권 3호



코로나19로 상처받은 땅에
성경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

130여 년 전,
한반도에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 보급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0 가을 제66권 3호

02 포토에세이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04 커버스토리

말씀으로 전하는 희망

08 2020 해외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1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아르헨티나 '위치어' 성경
출판 후 20년, 변화된 공동체

12 말씀을 만나다

성경의 수확 절기

14 현장 이야기

어린이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16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18 후원 이야기

21 성경을 전하다

예기치 못한 기쁨들,
미안마 조 친족 성경 번역 후원을 진행하며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2019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44번길 110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주일학교를 방문한 클라우디아와 아들, 조카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클라우디가 거주하는 씨티 솔레이(Cité Soleil)는
아이티(Haiti)에서 치안이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디는 11살 아들과 10살 조카의 손을 잡고
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두 아이는 주일학교에 참여하여, 나란히 신약성서를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의 고백처럼
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희망

- 코로나19로 상처받은 땅에 성경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의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국가들은 매일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하루 벌어 하루의 생계를 이어 나가던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오히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

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 보급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성서공회들입니다. 성서공회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 출판, 보급,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빈곤 속에 있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아직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들은 성서공회의 성경 번역을 통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성경을 기증받은 레니스(Lenis)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칸디도(Candido)

“일자리를 위해 이민을 왔지만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어요. 오늘 받은 이 성경책은 큰 축복입니다. 주변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레니스(Lenis)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용감하고 울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일어난 감격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칸디도(Cand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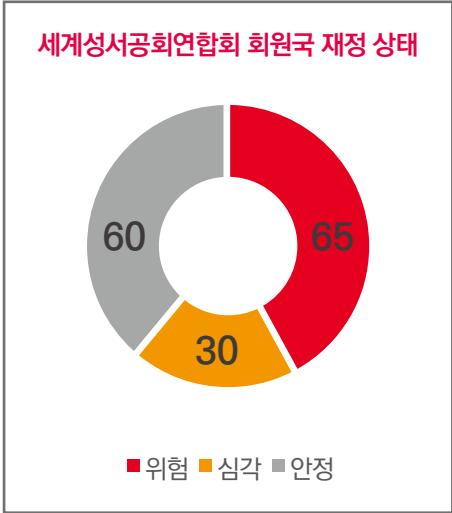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지만, 성서공회를 통해 어렵게 전해진 성경으로 위로 받은 전세계 이웃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민자 가정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레니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빈 손으로 코스타리카에 온 이민자입니다. 이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받아 든 레니스는 주위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기쁨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칸디도 또한 이민자 신분으로 건설업종에 종사했지만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달받은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국 성서공회들은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인해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155개 성서공회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보면, 지금 당장 성서 보급이 어려운 '심각' 단계의 성서공회가 30개, 이동 제한 조치가 약 3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성서 보급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 단계의 성서공회가 65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본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성서 보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한 상황 속에서 각국 성서공회들이 모였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나라와 전통, 예배의 형식 모두 다르지만 한 분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임을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자매 성서공회들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후 상황과 형편을 따라 서로를 돕는 데 힘썼고, 전후에도 각국의 성서 보급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 안디옥 교회 또한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이웃사랑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연합하여 서로를 도왔던 성서공회의 정신과 안디옥 교회의 마음을 따라 성경을 보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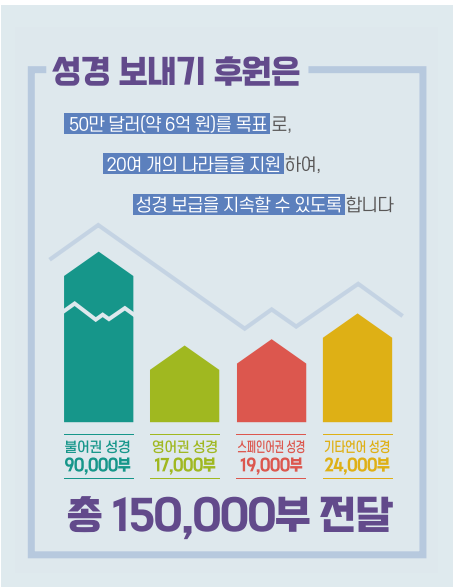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27-30

대한성서공회는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던 전세계 이웃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성경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한 지금, 대한성서공회는 50만 달러(약 6억 원) 규모의 성경을 지원하러 합니다.

이는 20여 개의 나라에 약 150,000부의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 보급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성경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여전히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전합니다.



▲ 해외 성경 보내기 후원 내역

성경을 직접 제작할 수도 구할 수도 없는 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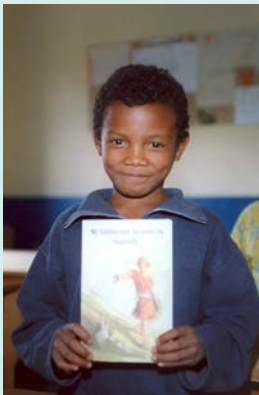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성서 보급이 어려운 20여 개의 나라들에 약 150,000부의 성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만 원을 현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절망에 빠진 해외 이웃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2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1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굵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20. 8. 21 기준)

아프리카 지역 27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미주지역 21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서인도제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성서위원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유럽, 중동
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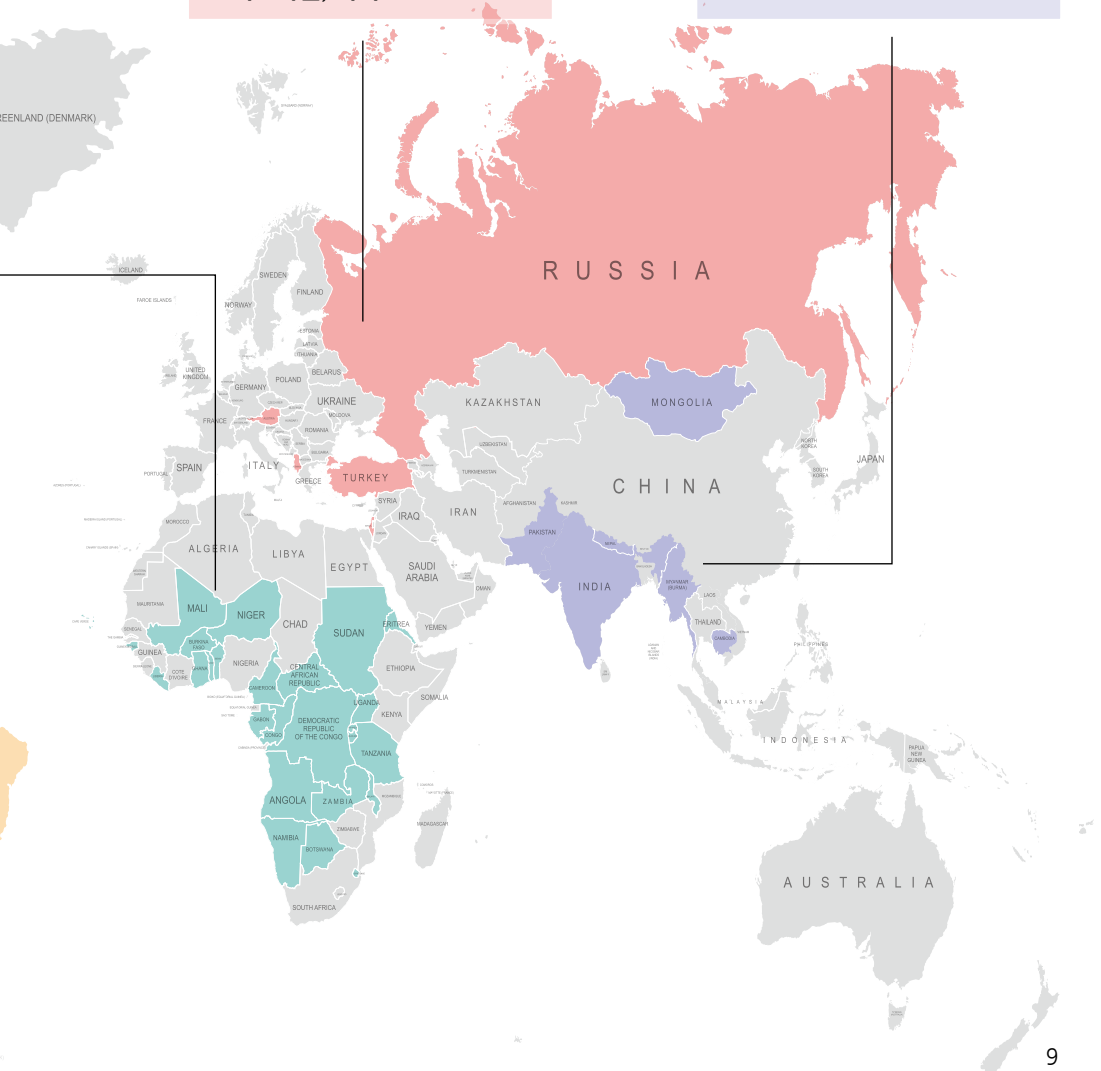


러시아, 아랍-이스라엘,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터키

아시아 태평양
7개국



남태평양,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위치어’ 성경 출판 후 20년, 변화된 공동체

위치어(Wichi)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소수민족 언어 가운데 하나로 약 6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위치어를 사용하여 자녀들에게 그 언어를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스페인어를 이해는 하지만 편하게 사용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위치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봉헌식에서 성경을 받았던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에) 모든 사람이 왔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현장은 마치 축제와 같았어요.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하나님의 사역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 세페리노 (Ceferino)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서를 받은 감격은 봉헌식 당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위치어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글 읽는 법을 배우다

절반이 문맹이었던 위치어 공동체는 성경을 사용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성서공회에서 실시한 문자교실 프로젝트는 많은 위치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사용된 학습 교재는 바로 위치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 문자교실을 수료한 사람들은 263명이었습니다.



▲ 성경을 읽고 있는 화니 산체스(Fanny Sánchez)

“이 문자교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스페인어 성경을 읽을 순 있지만 우리말로 읽는 성경과는 비교 할 수 없습니다.”

- 화니 (Fanny)

공동체 가운데 빛이 되다

위치어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성경을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평화’ 그리고 ‘함께 살기’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각 가정이 떨어져서 산에서 각자 생활 하였습니다”

- 칼릭스토 (Calixto)

오늘날 위치어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만 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치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자신들의 삶이 변화된 것에 감사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세페리노 (Ceferino)



▲ 위치어 성경을 소중히 안고 있는 칼릭스토(Calixto)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 공회에서는 현재 미얀마의 소수 민족 언어인 ‘파오어, 자이와어, 라우투어, 팔람어, 테덤어’ 등 5개의 번역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번역이 완료되면 이 성경을 제작하여 현지 교회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번역이 완료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한 조판(Type Setting)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성경의 수확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절기들은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지켰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하여 감사드리기 위해 지키기도 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절기가 되면 동물들과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첫 곡식 단을 바치는 절기

(히브리어로 ‘하그 하 비쿠림’)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절기는 유월절(3월/4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에 있었던 세 번의 수확 절기 가운데서 첫 번째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둘째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의 첫 일요일에 지켰습니다. 두 번째 수확 절기는 오순절/칠칠절이었고 세 번째 수확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성경적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레위기 23:9-14



▲ 보리

오순절

(‘50일째 날’, 칠칠절[히브리어로 ‘샤부오트’] 또는 맥추절)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즉 5월/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 배경: 오순절은 세계의 순례 절기들(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순례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직 존재하는 한, 매년 가야 했습니다. 곡식 수확을 마칠 때 사람들은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햇밀가루로 만든 빵 두 덩이를 동물과 함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16; 34:22; 사도행전 2:1-13

초막절

(히브리어로 ‘숙곳’)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로, 9월/10월에 칠 일 동안 지켰습니다.

성경적 배경: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절기였으며, 세 개의 순례 절기들(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사람들은 정원이나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로 열기설기 엮어 만든 초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 레위기 23:39-43 🌐



▲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



▲ 초막

출처

Michael Jahnke, ed., *Mein Bibellexikon* (Marienheide: Verlag Bibellesebund, in Kooperation mi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d SCM R. Brockhaus, 2012), 76-77 중에서(번역: 김창락).

어린이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 방글라데시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받은 어린이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국민이 약 1억 6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나라에서 이슬람은 가장 큰 종교로 약 90%의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9%는 힌두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99%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성서공회는 지역 단체 및 교아원과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 출신으로 성경을 가지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방글라데시성서공회는 성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림 성경이나 소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농촌 가정은 적어도 5-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받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함께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어머니는 무슬림 남자와 떠나버렸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오두막집에 살며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기술학교를 다닐 때는 용접 훈련을 하다 눈을 다치기도 했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지만 성서공회의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성경을 아침저녁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곤 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제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이 말씀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 아카쉬 (Akash)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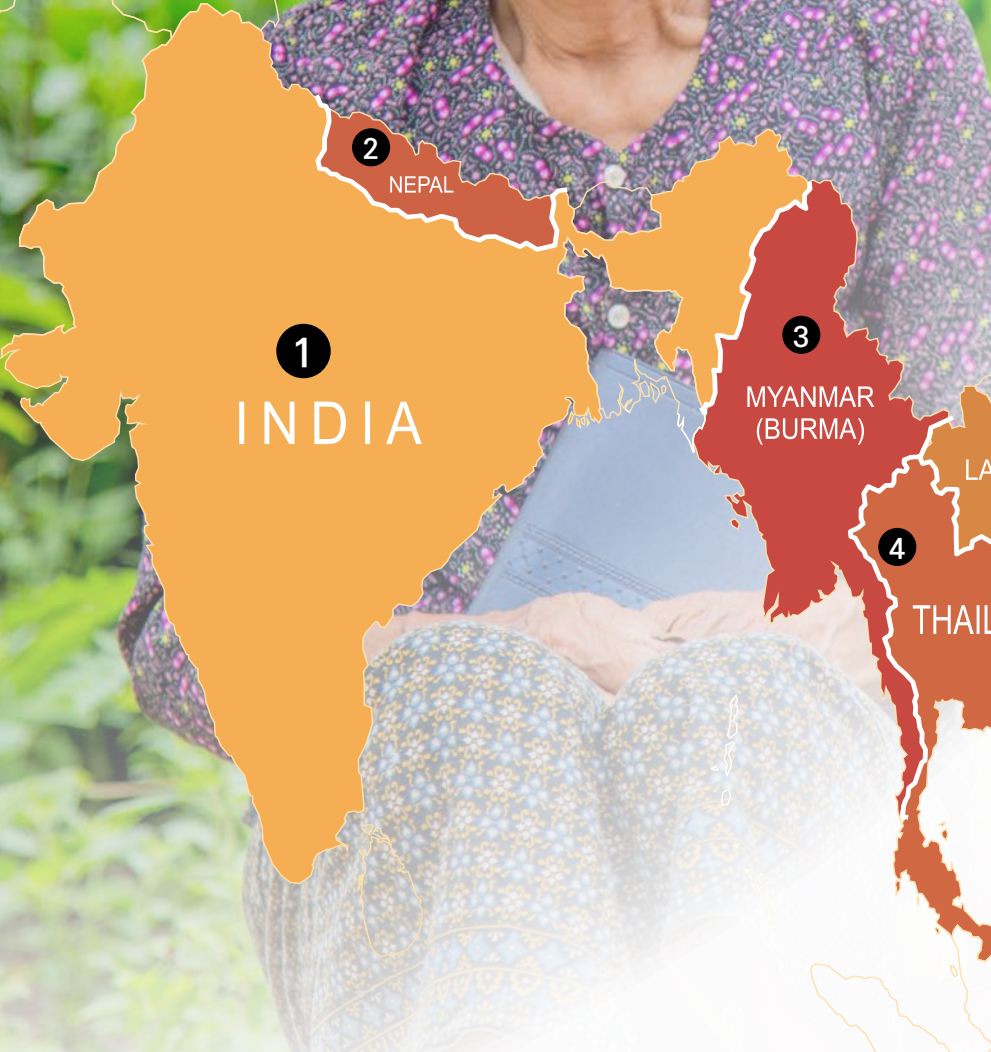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성서공회는 약 4,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방글라데시 성경학교에 참여한 어린이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① 인도

'성경 2020'이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0명의 어린이, 5,000명의 젊은이, 5,000명의 인도성서교회 젊은 전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더 많은 성경 제작과 반포 계획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네팔

네팔어 성경과 네팔어 사용자들을 위한 성경 관련 소재자의 성공적인 번역과 제작, 반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네팔성서교회가 성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또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미얀마

미얀마 땅 가운데 성경 보급 사업이 자유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평화와 민주주의가 자리잡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미얀마성서교회가 진행 중인 8개의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④ 태국

더 많은 연구자들이 구약 선지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서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성경 5,000부 이상을 배포하기 위한 재정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기독교 소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교회 프로젝트가 지역 교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⑤ 라오스

라오스의 문자교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자교실을 비롯해 진행 중인 성서 번역, 출판 및 반포 과정에서 라오스성서교회 직원들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⑥ 캄보디아

진행 중인 어린이 성경 배포 프로그램인 '말씀의 자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성경보급 프로그램인 '모든 사람을 위한 살아 있는 말씀', '문자교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크메르어 해설 성경과 개정 크메르어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남양주충신교회

〈굴만세마어 성경〉 6,930부 및 〈어린이 불어 성경〉 3,072부 기증



▲ 성경 증정(김영례 권사 가족)



▲ 기증 성경이 실린 컨테이너 앞 남양주충신교회 성도들

2020년 6월 27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굴만세마어 성경 5,450부/어린이 불어 성경 2,000부)과 남양주충신교회(안성덕 목사)의 후원(굴만세마어 성경 1,480부/어린이 불어 성경 1,072부)으로, 부르키나파소에 〈굴만세마어 성경〉과 〈어린이 불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경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또 남양주충신교회 안성덕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 세워졌던 것처럼, 전 세계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쪽 내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로 부르키나파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대다수는 아프리카 방언을 사용하며, 84개에 이르는 방언으로 문맹률은 58.8%에 이릅니다(2018년 기준). 또한 부르키나파소에서 14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58%에 이르지만 사랑받고 꿈을 키워야 할 많은 어린이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성경을 활용
해 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굴만
세마어가 사용되는 여러 지역에서 문자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프로젝
트를 통해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성
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와 남양주총
신교회의 후원으로 전달되는 성경을 통해 읽
고 쓰는 기쁨을 넘어 복음의 감격이 전해지고,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
끼고 부르키나파소의 미래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소망

창조교회

〈킨야르완다어 성경〉 13,618부 기증

2020년 7월 8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을 보
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홍기영牧사는 “르완다에 보내는 킨야르완
다어 성경이 르완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
시는 위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
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창조교회는
2015년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을, 2019년에
는 미얀마 조친어 성경을 후원해 주신 데 이
어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을 후원하였
습니다.”라고 하며 창조교회에 감사를 전하였
습니다.

르완다는 투치족과 후투족의 종족 간 갈등
에서 비롯된 1994년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 기증하는 성경 앞 창조교회 성도들

기간 고통받는 국가입니다. 이 사건으로 르완
다 전체는 황폐화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르
완다 사람들은 대학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가
족 간의 붕괴, 빈곤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
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르완다성서공회는 르완다 사람들이 성
경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

을 위로하고 가해자와 생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키타르완다어 성경 13,618부는 르완다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살의 후유증으로 어려

움을 겪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랜 시간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재황 장로

〈터키어 신약전서〉 14,100부 기증



▲ 성경 증정(왼쪽부터 김중훈 장로, 이재황 장로, 호재민 총무)

2020년 8월 19일 이재황 장로의 후원으로 터키에 〈터키어 신약전서〉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재황 장로는 “직접 터키에 갈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터키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터키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로 다양하게 발전된 무역과 문화가 꽃피우지만 종교적인 다양성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강경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런 터키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터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경한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터키성서공회가 교회를 통해 제공하는 터키어 신약전서를 통해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장로님께서 후원하신 터키어 신약전서 14,100부는 터키성서공회를 통해 지역교회에 제공될 예정이며, 성경을 구입하기 어려운 난민, 이민자를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

예기치 못한 기쁨들

- 미얀마 조 친족 성경 번역 후원을 진행하며

홍기영 목사(창조교회)

대한성서공회의 사역은 말씀으로 축복받은 한국교회가 늘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 사역을 소개받으면서 처음 드는 마음은 부담스러움이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번역과 감수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당회원들을 비롯한 교우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조 친족 성경을 번역하고, 깔레묘(Kalaymyo)지역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며 알게 된 것은 성경을 번역하여 섬기는 일이 사역이기보다는 말씀이 일으키는 축제에 초대된

은총이란 사실입니다. 감추어진 축복, 예기치 못한 기쁨들이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언어그룹의 성경을 번역하여 선물하는 선교적 영역을 섬기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어갈 수 있도록 번역하여 선물하는 것은 예상을 넘어서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제작한 성경을 전달하는 일이 가까워졌을 때, 번역한 성경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경험



한 말씀의 축복을 담은 의미로 성경을 읽고 보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교회가 조친어 구약 번역 후원을 섬겼었기에 한글 구약 성경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읽자고 제안하였는데,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약도 이어 읽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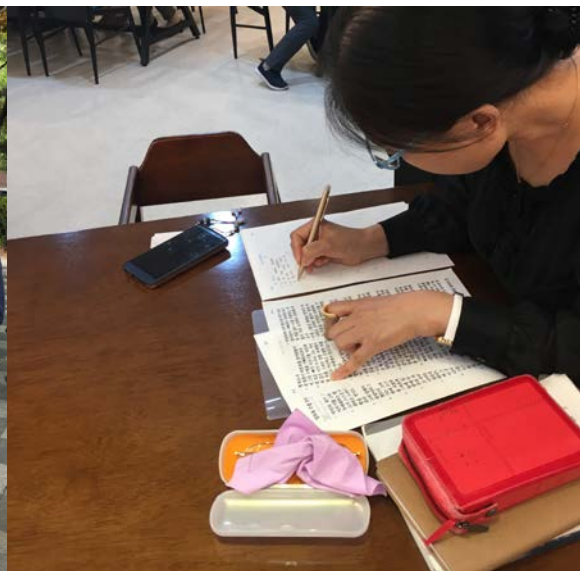
선교지로 움직이는 시간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한국사람에게 비자면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열어 주신 것처럼, 비자가 면제되고 환영 받는 기쁨 속에서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창조교회 '주님의 숲'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얀마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사역과 더불어 의료선교사역, 청년들의 섬김이 준비되었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봉헌예배를 드리는 날 깔레묘에서도, 청년들이 섬기던 양곤(Yangon)에서도 말씀의 감격이 일으키는 물결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넘실거리는 은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은 이 일이 구호활동이 아니라, 기쁨을 선물 받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가난하게 여겨지는 조 친족 교회 연합회가 깔레묘를

방문한 우리들을 축제로 음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성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봉헌식 설교를 하면서 대한성서공회가 정성스럽게 만든 성경의 비닐을 떼는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감격스럽게 성경을 받아 드는 모습에서, 질서 있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받아 드는 그들의 손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을 선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예기치 못한 기쁨은 조친 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3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깔레묘의 교회에 봉헌예배를 계획하며 6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당일 1,200명 넘게 성경을 전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역사로 인한 감격을 느끼는 감사한 축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교회에 찾아온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내고 봉헌예배를 드리는 2019년은 창조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성경 읽기는 창조공동체 전체에게 기쁨과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필사하여 우리가 함께 기록한 전교인 필사성경을 봉헌대에 올려 놓고 예배하는 은혜가 이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한 창조교회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수고로운 섬김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축제로의 비밀스러운 초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어려움 속에 창조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대면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양들을 치면서 지냈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조친어 성경 번역을

섬기며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도구를 받아 들게 하신 은혜라는 마음의 감격이, 예기치 못했던, 그래서 잔잔히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



*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경전서 4,000만 부 이상 반포되다

- 2019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019년에 성경, 신약, 단편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소책자 성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3억 1천 5백만 부가 넘는 성서를 반포하였다. 이 통계수치는 성서공회들이 보고한 2019년 성서반포통계를 수집한 결과이다.

2019년에는 370만 부에 가까운 어린이 성경이 반포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성서가 보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인구가 1/4을 넘으며 성서공회들은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 나라(브라질, 중국,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는 성서공회들이 반포한 성경전서의 수가 2019년 전 세계에서 반포된 성경전서의 절반에 육박했다. 한편 다섯 개 언어로 된 성경이 2019년 반포된 성경전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다. 스페인어 성경이 가장 많고, 그 뒤를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와 불어 성경 순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Michael Perreau) 총무는 “2019년, 많은 노력으로 보급된 성서들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2020년에 겪게 된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용기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나날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길 기원한다. 성경 반포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사실도 기념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02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후원문의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_____ (서명)

교회명 _____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예금주와의 관계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 매월 2만원 (성경 4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CMS 출금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은행명 _____ (휴대폰 전화번호로 된 계좌는 불가)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휴대전화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 _____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_____ (서명)

년 월 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인내하며 아픔의 시간을 딛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적, 경제적 환경으로 큰 불안 속에 있지만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재)대한성서공회